

‘메멘토’: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

201020788
영어영문학과
윤혜상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에 의하면, 언어에서의 ‘기호’는 개념과 청각 영상의 결합체를 말한다. 그리고 ‘개념’과 ‘청각영상’은 각각 ‘의의’와 ‘기표’라는 용어로 대체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각 영상이라는 말은 단순한 음성적인 질료가 아니라 음성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각인과 음성적인 감각을 함께 포함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자의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로 ‘상징’과 ‘기표’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징은 의의와 기표 간에 일련의 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기표=지시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시대상과 기표의 관계는 임의적이며 관습에 불과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회 속에서 사물 기표는 해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이 가능한 다양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¹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 세상은 텍스트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세상이 사물 기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호는 인간의 감정과 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와 문명 자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호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기호가 인간 삶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이다.

‘메멘토’는 독특한 전개방식으로 진행되는 영화인데, 흑백 화면과 칼라 화면이 번갈아가며 나온다. 이 두 장면은 한 장면씩 번갈아 가며 나오는데 그들은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을 지니고 있다. 칼라 장면은 사건이 역순으로 진행되는데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실제 시간상으로는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이다. 흑백 장면은 원래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되며 칼라 장면보다 앞에 일어난 일로,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칼라 장면과 흑백 장면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라 장면에서는 주인공 레너드가 아내의 강간범을 찾은 과정이 주요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거기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모두 다르고, 누굴 믿어야 할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흑백 장면에서는 사건의 발생이 주요 내용이 되기 보다는 레너드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새미 켈킨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직 보험수사관이었던 레너드는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던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10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고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리기 이전의 것들 뿐이다. 기억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레너드는 범인을 추적하는데 단서가 되는 물건이나 혹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삶의 중요한 의미들을 사진을 찍어서 메모하거나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새겨 넣는다.

레너드는 전적으로 자신의 메모와 문신에만 의존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 메모와 문신이 오로지 10분 동안만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메모를 의심하지 않는다. 레너드는 자신이 써놓거나 문신으로

¹ 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 강의』, 김현권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참조.

새겨놓은 기표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나탈리와 테디라는 인물이 있는데, 레너드는 이들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메모와 문신에만 근거하여 판단한다. 즉, 그의 삶은 철저하게 기호를 바탕으로 해석된 사항들과 이러한 기표와 기의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현실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시대상과 기표의 관계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소쉬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레너드의 기억은 10 분마다 백지화되고, 그에 따라 그가 만들어놓은 기표들은 매번 다르게 해석된다. 그가 앞뒤 상황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나탈리와 레너드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나탈리는 레너드에게 그의 아내를 모욕하고 폭언을 퍼붓는데, 이에 분노한 레너드가 참다 못해 그녀를 때린다. 나탈리는 레너드가 어차피 곧 다 잊어버릴 것이고 자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밖으로 나간다. 레너드는 다급하게 나탈리의 사진을 꺼내서 방금 벌어진 상황을 메모하려고 하지만, 집안에 있는 모든 펜을 숨겨버리고 나간 나탈리 때문에 방금 발생한 상황에 대한 메모를 하지 못한 채 10 분을 보내버린다.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탈리가 울면서 들어오자 레너드는 또다시 어리둥절한 상태로 나탈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고, 도드에게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따라서 레너드의 해석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만으로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 즉 체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소쉬르는 언어 사항을 단순한 음성과 개념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며, 그것이 속해 있는 체계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어는 체계로서, 언어 체계의 모든 사항은 연대적이고 한 언어 사항의 가치는 다른 모든 사항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므로 생겨난다는 것이다.² 이러한 주장은 레너드가 앞뒤 상황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체계에 대한 인지없이 기표를 해석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된다.

“내 마음밖의 세상을 믿어야 한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눈을 감고 있어도 세상은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한다.”

‘메멘토’에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인해 영화 후반부에 밝혀지는 반전이 있는데, 레너드가 이미 테디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강간범인 존 G 를 죽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너드는 아내의 복수에 성공했다는 테디의 말을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존 G 를 찾는 일에 몰두한다. 심지어는 살해 후 성공의 징표로 찍어놓은 폴라로이드 사진마저 불태운다. 자신의 기표를 조작하는 것이다. 레너드의 ‘현실’은 ‘아내를 살해한 존 G 가 살아있고, 그를 찾아내서 죽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는 아내의 복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내면을 파고들어보면 자기방어를 위해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고 지속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테디의 뒷모습을 보며 “너도 존 G 가 될 수 있다”며 ‘Don’t believe his lies.’라고 테디의 폴라로이드 사진에 써넣는 레너드의 모습은 그가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기표의 조작을 통해 스스로를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그의 마지막 대사는 모순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진짜 기억을 스스로 억누르고 있는 레너드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게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밖의 세상을 믿어야 한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눈을 감고 있어도 세상은 존재한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합리화한다. 레너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해석의 틀 안에서 끊임 없이 메모하고 기록하지만 그 기억들은 다 자기 검열을 통해 왜곡되어있고, 그것은 결국 레너드를 빠져나올 수 없는 피비우스의 띠같은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레너드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이다.

² 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 강의』, 김현권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231~234 쪽.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모든 꿈이 소원 성취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불쾌감을 주는 꿈과 불안-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러한 불안-꿈이나 불쾌감을 주는 꿈의 외현적 꿈-내용과 잠재적 꿈-내용을 해석해보면 결국 소원 성취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꿈이 잠재적 내용과 비교하여 반대로 왜곡되어 있다면, 여기서 왜곡은 의도적인 ‘위장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꿈들의 해석 과정에서는 말하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런 꿈이 일깨우는 불쾌한 감정은 단순히 그 주제를 다루거나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혐오감과 일치한다. 이런 꿈들의 불쾌한 특성을 꿈-왜곡의 사실과 연관지어, 꿈-주제나 주제에서 비롯되는 소원을 혐오하고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꿈들이 왜곡되고 소원 성취가 알아볼 수 없게 위장된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³ 꿈에서 소원 성취가 알아볼 수 없도록 위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소원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이 저항 때문에 소원은 왜곡되어서 밖에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⁴ 꿈-형성을 할 때, 개인의 두 가지 심리적 힘(경향, 체계)을 가정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꿈을 통해 표현되는 소원을 형성하고, 다른 하나는 꿈-소망을 검열하고 검열을 통해 소원의 표현을 왜곡하도록 강요한다.⁵ 따라서 꿈-왜곡은 검열 행위로 증명된다. 꿈의 본질을 표현하는 공식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꿈은 (억압되고 억제된) 소원의 (위장된) 성취이다>.⁶

이와 같은 프로이트의 주장을 바탕으로 레너드가 기표 조작을 통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레너드는 아내의 진짜 강간범을 죽이고 그에 대한 증거까지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되는 사진은 불태웠다. 또한 진짜 범인은 이미 죽었고, 새미의 이야기도 다 지어낸 것이라는 테디의 말을 듣고도 부정하며 그의 사진에 ‘그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는 거짓 기표를 기록해둔다. 이는 레너드가 아내의 복수를 명분으로 삼고 자신을 ‘아내의 강간범을 찾아 복수해야 하는’ 상황에 계속 몰아넣고 싶은 소원을 위장하는 것이다. 소원을 위장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검열을 통하여 왜곡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레너드는 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일까? 앞서 ‘메멘토’의 독특한 전개방식에 대해 서술하면서, 흑백 영상으로 된 장면들에서 레너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새미 켄킨스’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미는 레너드가 보험 수사관으로 일할 때 담당했던 사건의 당사자이다. 새미는 레너드와 마찬가지로 기억을 지속시킬 수 없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레너드는 이러한 증상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그를 조사하였다. 사건 수사관이었던 레너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의 눈에서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새미의 경우는 레너드의 잦은 방문에 그를 알아보는 듯한 눈짓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레너드는 새미의 행동이 보험금 수령을 위한 거짓 행동이라고 결론 내린다. 또한 새미의 반복학습이 매번 처음의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더라도 조건 반사적인 학습은 배울 수 있다는 의학적인 실험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다. 그리고 새미의 아내는 보험금에 관계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미가 더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자신을 속여온 것이라 여긴다.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새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지만 끝내 실패하게 된다. 결국 당뇨병을 앓고 있던 새미의 아내는 사고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인술린 주사를 놓아주는 새미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실험을 한다. 새미 몰래 자꾸 시계를 돌려서 인술린 주사를 15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맞는 것이다. 만약 새미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가 인술린 과다로

³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역, 열린책들, 1997, 205 쪽.

⁴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역, 열린책들, 1997, 185 쪽.

⁵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역, 열린책들, 1997, 187 쪽.

⁶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역, 열린책들, 1997, 206 쪽.

죽기 전에 인슐린 투여를 그만둘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새미의 아내는 죽게된다.

“새미를 기억하라”

‘메멘토’의 또다른 반전은 새미 켄킨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사실은 레너드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죽어간 것은 새미의 아내가 아닌 레너드의 아내 이야기였고, 그녀는 강간사건이 발생하던 날에 살해된 것이 아니라 레너드로 인해 죽게된 것이다. 따라서 레너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새미에게 전이시킴으로써 아내를 죽였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꿈의 목적을 소원의 성취라고 보았고 이 소원은 꿈-압축과 꿈-전위로 위장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꿈-전위와 꿈-압축은 꿈-형성을 주로 담당하는 두 명의 공장장이라고 볼 수 있다. 꿈-전위의 사실에서 표현되는 심리적인 힘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전위의 결과는 꿈-내용이 꿈-사고의 핵심과 같지 않으며, 꿈이 무의식에서 일어난 꿈-소원의 왜곡만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꿈-왜곡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사고 활동의 한 심리적 장치가 다른 장치에 행사하는 검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꿈-전위는 이러한 왜곡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의 하나이다. 꿈-전위가 검열의 영향, 즉 심리 내적인 방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⁷ 따라서 레너드의 단기 기억상실증은 레너드의 무의식 속에서 새미와 새미의 아내의 이야기로 전위되어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아내를 죽인 레너드의 죄의식은 검열의 영향을 받아 억압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레너드는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죽였다고 생각되는 범인을 찾아 나서는 스스로의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결국 레너드의 왼쪽 손에 새겨진 “새미를 기억하라”라는 문신은 자신의 무의식적 죄의식이 새미를 통해서 전이되는, 즉 그의 무의식적 죄의식과 갈등의 억압 등이 새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가 새미를 기억하는 것은 새미를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적 죄의식이나 억압 등으로 괴로워하거나 갈등하지 않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레너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새미의 이야기로 말하는 것을 전위가 아닌 다른 꿈의 묘사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유사, 일치, 공통점>을 일반적으로 한데 모아, 이미 꿈-재료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형성되는 <통합>을 통해 묘사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는 <동일시 Identifizierung>, 후자는 <혼합 형성 Mischbildung>이라 부를 수 있다. 동일시는 인물들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혼합 형성은 사물들을 결합시킬 때 이용되지만 사람일 때도 가능하다.⁸ 앞서 말한 꿈-전위 작업의 관점에서 보면 새미 부부는 레너드가 위장의 수단으로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로 볼 수 있다. 반면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새미를 레너드가 보험 수사관으로 일하던 당시에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노렸으나 거짓 판정을 받고 실패했던 실존 인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새미라는 인물을 실존 인물로 본다면, 레너드가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새미와 자신을 동일시켰거나, 혹은 몇가지 특징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통합체인 혼합 인물을 만들어 냈을 가능성이 있다. 동일시는 공통점에 의해 결합된 인물들 중 어느 하나만이 꿈-내용에서 묘사되고, 제 2의 인물이나 그 밖의 사람들은 꿈에서 억압된 듯 보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은폐하는 인물은 꿈에서 자신이나 은폐된 다른 인물들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계와 상황에 개입한다. 혼합 형성이 인물들에게 적용되는 경우, 인물들에게 속하지만 서로 공통되지 않는 특징들이 꿈-형상에 존재한다. 그 결과 이러한 특징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통합체인 혼합 인물이 나타난다.⁹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레너드는

⁷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역, 열린책들, 1997, 369 쪽.

⁸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역, 열린책들, 1997, 381~382 쪽.

⁹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역, 열린책들, 1997, 382 쪽.

새미와 자신을 무의식 속에서 동일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새미와 레너드는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라는 공통점에 의해 결합되고, 이들 중 새미가 꿈-내용에서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조사관으로 나오는 레너드는 제 2의 인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 2의 인물은 꿈에서 자신이나 은폐된 다른 인물들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계와 상황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보통 꿈에서 두 인물의 공통점이 묘사되는 경우에 묘사를 위해 공통점과 관련한 전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동일시나 혼합 인물 형성은 꿈에서 여러 가지 목적에 기여한다. 그것은 첫째로 두 인물의 공통점 묘사, 둘째 <전위>된 공통성 묘사, 셋째 단순히 <소원하는> 공통성의 표현을 도와준다.¹⁰ 레너드의 경우는 둘째의 전위된 공통성 묘사이다. 단기 기억상실증이라는 공통성을 새미에게 전위시켜 무의식에서 자신을 새미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레너드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새미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행동 양상을 보인다. 이는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와도 관련된다. 방어기제란 자아를 위협받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해결책을 이끌어내고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의식이나 행위를 말하는 정신분석학적 용어이다.¹¹ 방어기제는 어떠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현실을 왜곡하고 숨기고 부정하며 심리적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안에 대처하는 비합리적 방법이다. 그 문제에 직면할 용기가 없거나 두려워 할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자아를 손상 받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방어기제는 인간의 감정을 위장하고 왜곡하거나, 일시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려는 일종의 위장 및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 방어기제에는 위협을 부정하거나(억압), 위협을 외부화하거나(투사), 정지하거나(고착), 후퇴하는 것(퇴행)이외에도 전치, 합리화, 승화, 격리, 동일시, 도피, 저항 등이 있는데, 레너드의 행동에서 이것들과 일치하는 것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¹²

‘메멘토’는 기억은 기록이 아닌 해석이며 불완전하다는 주제를 영화 전반에 걸쳐서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기록이라는 지표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들을 읽고 공부하며 그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지만, 사실은 시대적 배경과 당시 상황을 근거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성군이 폭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메멘토’를 보고 난 후에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들은 얼마만큼이 진실이고, 얼마만큼이 조작된 것인가? 나의 기억은 믿을 수 있는가?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식은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그것은 절대 온전한 진실이 아니다. 기록은 체계를 바탕으로 언제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조작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문헌>

- 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 강의』, 김현권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Sigmund Freud, '방어의 신경정신학(The Neuro-Psychoses of Defense)', 1894.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역, 열린책들, 1997.
 Sigmund Freud, 『프로이트 심리학 연구』, 이학 역, 한일, 1989.

¹⁰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역, 열린책들, 1997, 384 쪽.

¹¹ Sigmund Freud, '방어의 신경정신학(The Neuro-Psychoses of Defense)', 1894.

¹² Sigmund Freud, 『프로이트 심리학 연구』, 이학 역, 한일, 1989, 107 쪽.